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초록우산 2024 산타원정대 <2>

국가대표 희망 취약계층 초등생 새 축구화 마련도 어려운 처지 소원에는 아이들의 절실한 염원 560명에 성탄절 소원 접수받아 “아이들의 빛나는 소원 응원을”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무대에서 빛나는 플레이를 선보이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빌라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동훈(10·가명)이는 국가대표 미드필더를 꿈꾸는 축구 유망주다. 동훈이는 남들보다 월등한 운동신경을 가져 체육시간이면 학교에서 알아주는 골잡이로 활약하고 있다. 동훈이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체계적으로 축구를 배워본 적은 없었지만, 최근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한 기관의 후원 덕에 축구교실 선수반에 합류하게 됐다.

동훈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슈팅, 패스, 드리블 등 기본기는 물론 전문적인 훈련까지 실력을 갈고닦는데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 훈련의 결과로 실력은 ‘일취월장’하고 있지만, 선수용 축구화 하나 새로 마련하기 어려워 동훈이는 오늘도 애지중지 아끼는 ‘낡고 해진’ 축구화 한 켤레를 수선해서 신는다.

초록우산 광주본부는 동훈이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로운 축구화 세 켤레를 선물할 계획이다.

이는 초록우산 전국 20개 지부에서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후원자)들이 산타가 돼 저소득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초록우산의 연말 대표 캠페인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후원자들은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사회에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자는 취지다. 초록우산 광주본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저소득 가정 및 보호아동들을 위해 올해도 아이들의 소원선물과 함께 난방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키트’를 선물할 방침이다.

동훈이의 모친 소마나(33·가명)씨는 나주에 위치한 정육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매일 새벽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출근해 저녁이 다 돼야야 퇴근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마나씨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 걱정에 축구화 하나 사달라는 어리광도 못 부리는 절든 동훈이의 마음은 그녀를 더욱 아프게 해왔다.

소마나씨는 “하나뿐인 아들의 꿈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어 마음이 아팠는데, 초록우산을 비롯한 후원기관의 도움 덕에 동훈이가 축구를 계속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동훈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동훈이는 “늘 나에게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초록우산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새 축구화를 신고 더 열심히 훈련해서 꼭 (손)흥민이형과 (이)강인이형처럼 세계무대를 호령하는 축구선수가 돼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환하게 웃었다.

초록우산 광주본부는 이번 ‘산타원정대’를 통해 동훈이를 비롯해 560명의 광주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소원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아이들의 사연을 접수받았다. 어린아이들이 보내온 편지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절실한 염원이 담긴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밖에도 올해는 장기화된 경제침체의 영향 탓에 아이들의 소원선물 중 부모와 조부모 등 보호자를 위한 따뜻한 소원들도 다수 접수된 것이 특징이었다.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지용(12·가명)이는 고장난 청소기와 밥솥으로 힘들게 살림을 하는 할머니를 위해 새로운 청소기와 밥솥을 갖고 싶다는 소원을 초록우산에 보냈다. 또 매일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아빠가 무료로 나눔받은 낡은 침대 대신, 편안한 침대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침대를 받고 싶다는 내용의 소원들도 있었다.

올해 초록우산 광주본부의 산타원정대 모금 목표액은 2억4000만원이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부문화의 위축이 우려되지만, 불경기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초록우산은 설명했다.

초록우산 광주본부 관계자는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꾸꾸지조차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번 산타원정대 캠페인을 통해 아직 많은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이야기 하는 철이 일찍 든 아이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소원을 응원해달라”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광주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산타가 되고 싶다면 누구나 ‘산타원정대’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문자(010-6601-3513)로 ‘산타원정대 후원희망’이라고 보내거나 초록우산 광주본부(062-351-3513)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이동훈(10·가명)군이 축구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모습.

초록우산 광주본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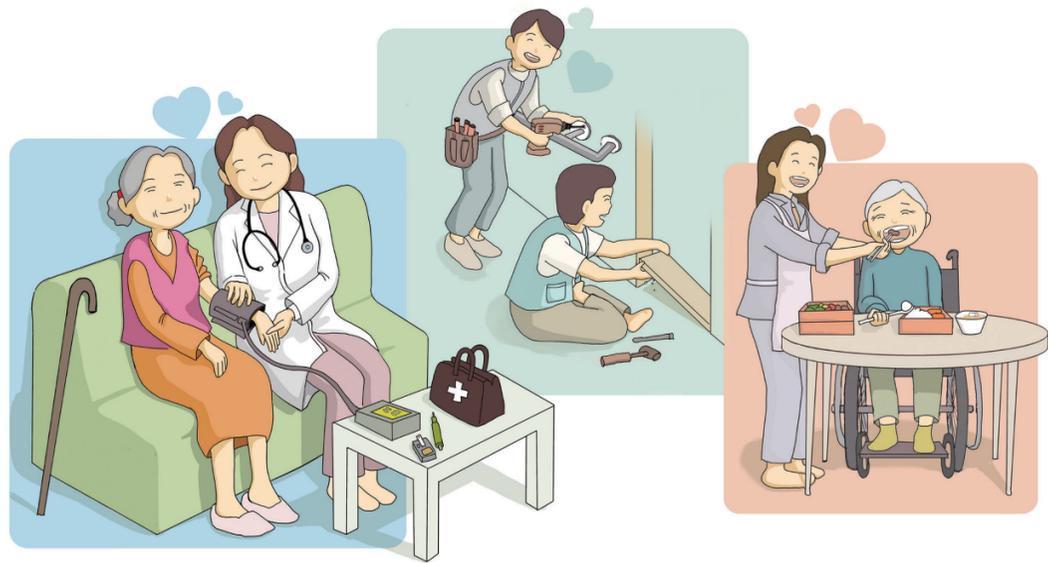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12월



주요 연계 서비스

- 보건의료**
 - 방문진료 • 방문구급관리 • 다제약물관리 • 건강검진
 -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 만성질환관리 • 호스피스
- 장기요양**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재택의료센터
- 돌봄**
 - 식사·청소관리
 - 병원동행
- 주거**
 - 주거환경개선
 - 케어안심주택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부산 수영구 • 대구 수성구, 달서구 • 인천 부평구 •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 대전 대덕구, 유성구
 - 경기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성시 • 강원 춘천시, 횡성군 •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 충남 천안시, 정양군 • 전북 전주시, 정읍시 • 전남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영광군
 - 경북 포항시, 상주시, 의성군 • 경남 김해시 • 제주 제주시
- 시범사업 참여 담당 신청**
 - 시범사업 해당지역 관할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보건소,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 시범사업 안내 및 문의**
 - 지역별 문의처는 QR코드로 확인 (시범사업 안내 게시판)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년 3월) 2026년 3월, 통합지원 전국 시행 예정



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게시 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당 대표 특보를 넣어달라고 방송국과 협의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표현한 것 같다. 실수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9일 오전 9시50분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차량과 숙소를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의원에 대해 차량 등을 제공한 보좌진 등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배서준 기자